www.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12월21일 · 제387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본부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DHL과 아부다비의 무바달라 개발공사,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2. 머스크 그룹, 글로벌 통합 컨테이너 물류기업으로 변화 추진
3. 무디스, 2017년 글로벌 해운산업 비관적, 항공산업 안정적 전망
4. 컨테이너 선사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마이애미 터미널들의 동맹

| 물류시장동향 |

1. UPS사, 삼륜 전기 자전거 출시
2. 멜버른항만은 신규 터미널로 호주 최고 항만의 자리를 지킴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DHL과 아부다비의 무바달라 개발공사,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 Deutsche Post DHL Group의 포워딩 전문기업인 DHL Global Forwarding과 아부다비에 기반한 투자개발기업인 무바달라 개발공사(Mubadala Development Company)*가 향후 5년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 DHL은 물류 프로세스를 조정함으로써 아부다비와 전 세계에 걸친 무바달라 항공 기업에 부품 등을 배송하고 세계화 및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
    * 무바달라 개발공사는 UAE의 고소득 산업 전환 계획에 따라 아부다비에서 설립한 회사로, 항공기와 반도체 생산을 포함한 여러 하이테크 산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무바달라는 항공기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와 함께 부품 조달(I2M; inbound to manufacturing) 물류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DHL은 무바달라 항공 기업의 물류 프로세스를 수평적으로 간소화하고, 효율적이고 반복이 가능한 방식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임
- 무바달라의 항공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의 Homaid Al Shimmari CEO는 "무바달라의 항공 및 정보통신기술 회사는 글로벌 공급체인의 심장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배송이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 "Nibras Al Ain Aerospace Park 산업단지에 아부다비의 항공 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현재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글로벌 OEM 파트너들의 입주가 진행되므로, DHL에서 지원하는 탄탄한 공급체인이 미래 성공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번 전략적 파트너쉽은 다양한 운송 방식에서 무바달라의 모든 자산과 고객에 대해 물류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 무바달라와 DHL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약 66%는 항공으로 운송될 예정임

자료 : DP DHL, 2016.12.5.

송주미 부연구위원
051-797-4773, jmsong@kmi.re.kr

머스크 그룹, 글로벌 통합 컨테이너 물류기업으로 변화추진

- A.P. Moller-Maersk 그룹은 자사를 세계적인 글로벌 컨테이너 통합물류제공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내륙을 포함한 컨테이너 운송, 포워딩, 공급사슬 서비스 등을 모두 통합한 글로벌 컨네이너 운송 및 물류 통합서비스의 가치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성장이 정체된 컨테이너 운송 시장 규모는 1,900억 달러임
  - 그에 따라 머스크 그룹은 컨테이너 운송시장을 넘어 1조억 규모의 공급사슬 전체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머스크는 Transport & Logistics 부문을 새롭게 조직, 고객에게 최상의 통합 컨테이너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 기존 머스크의 시장지위를 기반으로 한 통합물류서비스 제공으로 물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 요구를 충족시켜 이익증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자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머스크 그룹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연계 및 네트워크 최적화를 통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고자 계획하고 있음
  - 선사인 Maersk Line은 터미널 운영사인 APM Terminals에 충분한 물량을 제공,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터미널의 활용율을 높일 것임
  - Maersk Line, APM Terminals 및 Svitzer는 선박의 기항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위 ' 'pit stop' 전략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Damco, APM Terminals 및 Maersk Line는 소비자의 요구에도 현재는 단지 12% 만 충족시키고 있는 내륙서비스 제공도 눈여겨 보고 있음
  - 이러한 통합의 시너지효과로 머스크는 Transport & Logistics 부문의 투하자본수익율이 2017년을 기점으로 향후 3년간 최대 2% 포인트 상승할 기대하고 있음
  - 머스크의 통합된 운송 및 물류분야 사업의 투하자본수익률은 야심찬 수익증진을 통한 8.5%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머스크는 더이상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이 아닌 원가경쟁력 및 기존자산활용을 통해 성장을 이룰 것이고 밝힘
  - 머스크는 본질적으로 성장, 원가경쟁력, 고객서비스, 그리고 가격경쟁력이라는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통합물류 서비스 부문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 밝힘
  - 머스크의 Soren Skou 씨는 업계는 더이상의 선박을 원치 않고 있으며 머스크 역시 기존 발주된 선박에 이어 내년 신조발주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힘
  - APM 터미널 역시 자분지출에 의한 성장에서 원가경쟁력 및 자산활용율 증가를 통한 성장에 집중할 것임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6.12.14.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무디스, 2017년 글로벌 해운산업 비관적, 항공산업 안정적 전망

-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2017년 글로벌 해운산업을 비관적으로 전망함
  - 이러한 무디스의 비관적 전망은 선박공급과잉의 지속에서 비롯됨
  - 또한, 무디스는 선박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함
  - 만약 선박연료 가격이 향후에 더 오르지 않더라도 시장의 공급 초과로 인해 선사들이 연료비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함

- 무디스는 2015년 말부터 해운시장의 화물 운임률이 매우 낮은 가운데 최근에 오른 운임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함. 그러나 2017년에 운임 상승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공급증가가 수요증가를 계속 웃돌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화물운임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함

- 또한, 컨테이너 선사들의 합병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쟁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

- 드라이벌크 분야의 경우, 수요감소로 인해 운임 수준은 계속 낮을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선박인도 지연과 선박해체 취소로 인해 선박의 순톤수 증가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무디스는 항공산업의 경우, 올해 수익성이 약화되었으나 2017년에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함
  - 영업마진은 약 9.5%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영업이익은 약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항공사들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20%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남미 항공사들은 경제 향상 등으로 80%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함

- 무디스의 애널리스트 Jonathan Root는 글로벌 경제성장 부진과 테러리즘 위협 등으로 여객수요 성장은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보이나 개발도상국 시장의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개발도상국 시장의 수요가 가처분 소득 증가와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증가될 것이라고 말함

자료 : www.americansshipper.com, 2016.12.13

전우현 연구원
051-797-4615, jwh0321@kmi.re.kr

컨테이너 선사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마이애미 터미널들의 동맹

- **미국 FMC는 마이애미 항의 2개 터미널 운영사들이 컨테이너 선사와의 거래조건 및 수수료율을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한 협약(안)을 검토중**
  - 2015년 시애틀항과 타코마항이 항만 운영 측면에서 노스웨스트 항구 얼라이언스(Northwest Seaport Alliance)를 체결하였으나, 터미널 운영사들이 FMC(연방해사위원회; 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얼라이언스 승인을 요청한 것은 최초
  - 마이애미의 South Florida Container Terminal과 Port of Miami Terminal Operating Company는 하역비, 요금, 규칙 및 규정, 터미널 간의 수익률을 공동으로 설정/협상/허용되는 동맹을 원함
  - 터미널들의 요구 내용은 컨테이너 선사들이 과잉설비를 완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선박에 화물을 공동으로 선적하는 선복 공유 계약과 유사
  - 그러나, 컨테이너 선사는 얼라이언스 내에서도 예인선 운영사 및 하역업체 등과 같은 3PL과의 마케팅, 영업, 계약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회원사들과 경쟁 체제를 유지

- **FMC 위원인 William Doyle에 따르면, 마이애미 항이 요청한 협약(안)은 2017년 4월부터 운영 예정인 Ocean Alliance(COSCO, Evergreen, CMA CGM, OOCL)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언급**
  - Ocean Alliance는 자신들과 협의 시 터미널 운영사들이 공동 협의를 원하면 허용하였으며, 일부 터미널 운영사 및 항만당국은 선사들과의 거래조건 및 수수료율을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의 결성을 모색
  - FMC 위원들에 따르면 South Carolina Ports Authority를 포함한 다른 운영사들도 남동부 항만 운영사들과의 잠재적인 제휴 관계에 접근했으며, FMC 의장인 Mario Cordero는 더 많은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
  - Doyle은 마이애미 터미널의 계약이 운영사가 선사와의 서비스 거래조건 및 수수료율을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에 체결된 노스웨스트 항구 얼라이언스보다 진보한 단계로 인식

- **제안된 협약서에는 터미널 운영사들에게 선사들과의 하역비, 요율, 규칙 및 규정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논의 및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됨**
  - 11월 16일에 제출된 협상 초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Doyle과 Cordero와 같은 FMC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FMC는 선복 공유 계약 및 노스웨스트 항구 얼라이언스 계약과 동일하게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해당 협약서를 공개할 예정
  - Codero는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지역에 항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며, 결탁 또는 반경쟁 행위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FMC가 본 협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언급함

자료 : www.joc.com, 2016.12.8

이기열 전문연구원
051-797-4670, kylee@kmi.re.kr

물류시장동향

UPS사, 삼륜 전기 자전거 출시

- UPS사가 택배 배달을 위한 전기 자전거(eBike)를 출시함
  - 현재는 전기 자전거 운행 시험 단계이며, UPS사는 지속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전기 자전거 운행은 복잡한 도심지역에서의 택배 배달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함
- 새로운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로 구동되며, 장거리 및 언덕에서의 운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함
  - 미국 포틀랜드에서 첫 시범 운행 후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내년에는 더 많은 전기 자전거를 운행할 계획임

자료 : www.logisticsandsupplychain.com, 2016.12.13.

강선미 연구원
051-797-4776, sunmikang@kmi.re.kr

멜버른항만은 신규 터미널로 호주 최고 항만의 자리를 지킴

-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ICTSI)는 1월에 신규 멜버른 터미널을 오픈할 예정이며, 시드니 항만으로부터 호주 최고 항만의 자리를 지킬 무기임
  - 거의 완전히 자동화된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은 초기 35만 TEU의 처리능력을 가질 것이며, 140만 TEU로 확장 될 것임
  - Webb Dock에서 완전히 자동화 구역인 게이트에서 안벽까지의 건설은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 될 것이라고 ICTSI는 말함
  - 신규 터미널에는 8천 TEU 급 선박을 처리 할 수 있는 5개의 New Panamax ship-to-shore 갠트리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음
  - 개발 완료시, 안벽길이 7200야드, 면적 35.4헥타르의 터미널에 총 6대의 크레인을 보유하게 됨
- ICTSI는 DP World, Patrick Stevedores와 함께 멜버른의 터미널 운영업체임
  - 호주정부는 최근 매년 3천 척의 선박화물을 처리하는 멜버른항만을 정부가 예상한 45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73억 달러에 민영화 시킴

신규 멜버른 항만 터미널

자료 : www.joc.com

- 2015-2016 회계 연도에 맬버른항만의 물동량은 2.4% 증가한 260만 TEU를 기록함
  - 반면, 시드니항만의 물동량은 1.7% 증가한 230만 TEU를 기록함

자료 : www.joc.com, 2016.12.13.

김병주 연구원
051-797-0000, bjkim17@kmi.re.kr